

불교 진각종 도제교육의 방향*

장 익
위덕대학교

〈요 약〉

진각종은 현대사회에 부합하는 새로운 불교를 제창하면서 종단의 조직과 제도 운영의 측면에서 기존의 승단과 차별화하고 있으며, 출가자 교육이나 승원교육과 달리 특성화된 도제교육 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다. 그러나 시대적인 변화와 종단사정의 변모 등을 고려한다면 이제는 새로운 상황에 적합한 도제교육의 방향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진각종 창종의 정신에 적합한 이상적인 교화자상을 지속적으로 정립함으로써 새로운 교화자이며, 승단의 구성원을 충원하는 예비 교화자인 도제교육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상적인 교화자상의 확립을 통하여 구체적인 도제교육의 이념적인 방향을 생각해 보고, 실천적인 교육방안을 위한 제도적인 준비와 교육과정의 정립을 시도해 보았다. 진각종의 도제교육과 관련하여 종단에서 현재 시행 중인 제도의 변화와 관련한 부분과 앞으로 도제교육의 중요성을 실천할 수 있는 몇 가지의 방향을 제시한다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진각종 교화자의 위상을 명확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진각종의 교화자는 기존의 승단과는 구분되는 재가주의의 입장을 표명하기에 이에 적합한 위상이 정비되어야 한다. 둘째, 진각종은 새로운 불교로서 항상 현재시점에 유용한 불교의 전문포교 방안을 지속적으로 계발함으로써 존립의 의미를 유지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현대적인 도제교육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교육 방안이 수립되어야 한다. 셋째, 진각종은 진각대학원과 위덕대학교를 비롯한 종립학교를 설립하였으며, 이를 활용하는 도제교육의 제도적인 정비가 필요하다. 넷째, 진각종 도제교육의 수행과 교육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는 수행지도와 교과과정의 운영을 필요로 한다. 다섯째, 이와 같은 취지에 부합하는 도제교육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종헌이나 종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새롭게 개정함으로써 실질적인 도제교육이 실천될 수 있다.

핵심 주제어: 회당, 진각종, 도제교육, 기본의무교육, 예비교화자

* 이 연구 결과물은 2010학년도 위덕대학교 학술진흥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졌음.

I. 머리말

역사적으로 수많은 종교와 종단이 형성되었지만, 절대적인 가치를 존중하는 종단조차도 세속적인 원리에 따라 흥망성쇠를 거듭하였다. 지속적으로 그 가치를 존속하고 있는 종단이 있는가 하면 영원히 역사 속으로 사라져 이름조차도 알 수 없는 경우도 있다. 그렇다면 모든 종단이 주장하는 절대적인 진리성에 대한 주장과 신념은 그 종단이 영속되지 못하는 경우에도 신뢰성을 지닐 수 있을까?

이런 점에서 본다면 모든 종단은 비록 방법적인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영원한 진리를 추구하는 본질적인 면에서는 동질성을 갖지만, 이러한 부분이 일치한다고 하여서 세속적인 역할도 또한 영속적일 수는 없다. 오히려 신흥종단과 같이 종교적인 가치를 절대시하는 경우일수록 현실적인 모습의 부침이 더욱 심한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는 종단이 지니는 이상의 설정과 현실적인 실현이라는 두 가지의 측면을 예상하게 한다. 왜냐하면 어떠한 종단이라 할지라도 그 이상적인 설정은 인간이라는 현실적인 실현을 통해서만 가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현실적인 실현을 가능하게 하는 요소로 시(時)와 처(處)와 인(人)을 들고 있다. 시(時)란 시대적인 상황을 뜻하고, 처(處)란 사회적 지역적 환경요인을 말하며, 인(人)이란 사람마다의 근기를 말한다. 따라서 불교 또한 그 절대성은 비록 가감(加減)되는 법이 없다고 하지만, 시대적·지역적·인간의 상황에 따라서 부침을 거듭하면서 나타난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 따라 변화하게 되는 동인(動因)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이것은 결국 그 종교나 종단이 어떻게 그들이 지니고 있는 진리를 현실 속에서 구현해 가는가? 라는 종단 혹은 교단의 활동여하에 달려 있으며, 더욱 구체적으로는 그 종단이나 교단에 소속된 사람들에 의하여 좌우될 수밖에 없다.

특히 불교의 경우는 전통적으로 신자들의 참여가 부족한 것에 비하여, 강한 승단(僧團)의 조직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책임이 거의 승단에 부과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승단의 활동을 결정하고 지속적으로 유지해 가는 힘은 승단에 소속된 구성원들에서부터 그 원천을 찾을 수 있으며, 이런 점에서 승단의 구성원에 대한 교육은 불교교단에서 중요한 위치를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불교교단인 승가는 그 구성원을 교육하는 교육단체이며, 사원이 곧 학교의 역할을 하였다.¹⁾

이런 점에서 불교 진각종(眞覺宗)²⁾을 형성하고 있는 결정적인 구심체는 종단에 소속된 교화자³⁾이며, 교화자는 진리를 탐구하는 투철한 수행을 바탕으로 인간과 사회에 대한 깊

1) 원의범, 『승가교육의 역사적 전개』, 『석림』 제9권(동국대학교 석림회, 1975), p.335.

2) 진각종은 종조(宗祖)인 회당(梅堂)대종사에 의하여 1947년 6월 14일 창종되었으며, 참회원(懺悔園)과 심인불교(心印佛敎) 등의 종명(宗名)을 거쳐 1973년 3월 공식 명칭을 대한불교 진각종으로 정하였다.

3) 진각종의 교화자는 스승으로 호칭되며, 남자 교화자인 정사(正師)와 여자 교화자인 전수(傳授)로 구성된다.

은 통찰력으로 중생요익(衆生饒益)을 위한 다양한 방편으로 구제행을 실천해야 한다. 특히 진각종은 현대사회에 부합하는 새로운 불교를 제창하면서 종단의 조직과 제도 운영의 측면에서 기존의 승단과 차별화하고 있으며, 출가자 교육이나 승원교육⁴⁾과는 별도로 특성화된 도제교육⁵⁾ 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다. 그러나 시대적인 변화와 종단사정의 변모 등을 고려한다면 이제는 새로운 상황에 적합한 도제교육의 방향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진각종 창종의 정신에 부합하는 이상적인 교화자상을 지속적으로 정립함으로써 새로운 교화자인 승단의 구성원을 충원하는 예비 교화자인 도제교육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다. 또한 이상적인 교화자상을 생각해 봄으로써 이를 위한 구체적인 도제교육의 이념적인 정립을 생각해 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실천적인 교육방안을 위한 제도적인 준비와 교육과정의 방향을 찾아보고자 한다.

II. 진각종의 이상적인 교화자상

1. 종조정신과 교화자상

진각종의 교화자란 넓게는 진각종문을 형성하는 모든 구성원을 의미하지만, 용어의 내연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여기에서는 기성의 승단 구성원을 교화자로 호칭하고, 앞으로 교화자가 될 예비 교화자를 도제로 한정하고자 한다. 그리고 교화자란 석존의 포교선언에도 나타나듯이 일체의 속박에서 스스로 벗어나고 중생의 이익을 위하여 청정한 행동과 가르침으로 유정들로 하여금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는 자이다. 교화자는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스스로 부단한 자기성찰을 통한 내적 수행과 함께 중생들의 삶의 현장에 대한 이해가 동반되어야 한다.

불교교단인 승가에 속하는 진각종의 전문적인 교화자는 스승으로 불리며, 정사(正師:남)와 전수(傳授:여)이며, 진각종단의 승가를 형성하는 기본적인 인적 구성원을 말한다. 그렇

4) 승가교육이나 출가자 교육과 관련한 연구는 박선영, 『출가위승과 교육의 제문제』, 『석림』 제15(동국대 석림회, 1981); 박선영, 『한국불교의 승가교육제도』, 『종교교육학연구』 제8권(한국종교교육학회, 1999); 박선영, 『승가교육의 제도개선 방향』, 『승가』 제7 (중앙승가대학교, 1990); 이기영, 『승가교육의 제문제』, 『석림』 제9(동국대 석림회, 1975); 이지관, 『한국불교승가교육의 사적고찰』, 『불교학보』 제18집(불교문화연구원, 1981) 등이 있다.

5) 도제교육이란 도제를 위한 교육이며, 도제(徒弟)란 제자나 문인을 뜻하는 말이며, 스승에게서 학술이나 기예 등을 배우는 제자라는 의미인 문도제자(門徒弟子)의 준말이다. 불교경전의 근거로 『出曜經』 권제 16에는 “門徒弟子”(『大正藏』 4, p.696上)의 표현이 있다. 진각종에서는 현직 교화자를 스승이라 하고, 스승을 양성하는 과정을 도제교육으로 하며, 이와 관련한 도제교육법을 종헌으로 두고 있다. 따라서 진각종의 스승을 양성하는 예비 교화자 교육을 여기에서는 도제교육으로 호칭한다.

다면 교화자는 기본적으로 어떠한 자질을 갖추어야 하는가를 살펴보기 위하여, 먼저 진각종문의 개창과 관련하여 기존의 불교와 대비하여 진각종 교화의 특성을 밝히는 내용을 살펴본다. 진각종의 종조인 회당 대종사⁶⁾는,

사찰은 상(像)을 보고 불법승 삼보를 숭상하여 정화하고 진각종은 상을 떠나서 법보화 삼신 이 불(理佛)을 믿고 육행을 실천하며 인과를 내증하여 중생을 교화하는데 이원(二元)이 되어 호상(互相) 침투하고 영향되고 반영하여서 평등교화가 이루어 질 것이다.⁷⁾

라고 하여, 기존의 전통불교인 사찰교화에 대하여 진각종이 불교종단으로서 분립하여 성립되어야 하는 종단 존립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하는 내용으로 종단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는 또한 진각종이 지니는 교화의 원리를 설명하는 것이다. 당시 전통불교의 교화방법이 불상장엄이 중심이 되는 외면적이고 의식적인 면이 강했다면, 진각종의 교화는 내면적인 심적변화를 중시하고 자주적으로 현실생활 속에서 인과(因果)의 이치를 깨닫고 육행(六行)을 실천하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인 종단 분립의 성격인 대립적인 분파(分派)가 아니라 사찰의 삼보숭상과 진각종의 실천수행이 서로 보완되는 이원(二元)⁸⁾이라는 상호반영의 원리로 설명되고 있다. 이와 같은 진각종 설립의 기본이념이 되는 이원의 상호보완의 원리에 대하여 회당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일교(一敎) 내에서 여러 부문을 여는 것은 어두운 시대의 통솔적인 부문이며, 일원주의적인 부문이며, 봉건적인 소법이며, 소발달이다. 일교에서 체용과 방편이 달라서 이교(異敎)와 같이 분교되는 것은 문명시대의 자주적인 종파이며, 이원주의적인 종파이며, 평등적인 대발달이다.⁹⁾

이러한 경우는 현대적인 다원사회에서 다양한 종파가 서로 분립하여서 독창적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불교의 외연을 확대하는 일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다양한 계층에 대한 교화가 가능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¹⁰⁾ 특히 이교(異敎)와 같이 분교(分敎)한다는 것

6) 이하에서 회당으로 호칭함.

7) 회당, 『대한불교진각종 보살회를 세우는 뜻』, 『회당논설집』(위덕대학교 밀교문화연구원, 2002년), p.21.

8) “회당의 이원사상은 전통과 혁신을 이원 상대적으로 놓는 것이다. 여기에서 이원 상대적이란 두 가지를 상호보완, 상승관계로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 두 가지가 제각기 자기의 전문적 성격을 분명히 하면서 발전하면, 상호보완, 상승의 관계가 되어 더 원만하고 폭넓은 발전을 도모하게 된다”. <김무생, 『회당사상과 진각밀교』(위덕대 출판부, 2002), p.134>

9) 회당, 『대한불교진각종 보살회를 세우는 뜻』, 『회당논설집』(위덕대학교 밀교문화연구원, 2002년), pp.19-20.

10) 김무생, 『진각종 교화이념의 사회성』, 『회당학보』 제6집(회당학회, 2001), p.193에서는 “한국불교에서 기본문제는 전통적 형태에 안주하여 시대적인 변천에 대응하지 못하는 일원주의 통솔적인 활동이며, 불교의 교화활동을 전통의 계승과 시대상황에 따른 전문적인 교화의 문으로 분화해야 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으며, 진각종은 바로 불교의 이원 전문적인 분화의 일종으로 창종되었다.”고 하여, 진각종의 사회적인 역할을 전문적인 교화의 문을 여는 것으로 말하고 있다.

으로 진각종의 뚜렷한 차별성을 부각하고 있다.¹¹⁾ 이러한 점에서 진각종의 창종은 기존의 승단불교에 대하여 현대적인 생활불교로의 변화¹²⁾를 위한 역할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실천적인 교화방법에 대하여,

심인진리를 깨쳐서 전수하는 정사는 출가 승려와 달리 부부생활을 하고, 세상에 처하면서 중생으로 하여금 일상생활에서 보살계를 가지게 하여 화민성숙하는 것이다.¹³⁾

라고 하여, 진각종의 교화자는 세속의 중생들과 함께 삶을 영위하면서 스스로 심인진리를 체득하는 수행인 생활불교·실천불교를 통하여 일상생활에서 교화를 실천한다는 위상을 설하여 전통불교의 가람에 정주(定住)하여 수행 정진하는 수행교화 방법과는 다른 현대적인 새로운 수행과 교화방법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구체적인 교화방안에 대하여,

급진된 현대의 종교인 특히 불교인으로서 각성하여야 할 것은 시대성을 띄운 불타의 교리방편을 가진 재가종파가 따로 일어나서 대중적인 화도(化導)에 중점을 두고 사회 각계 각층에 침투하여 민주체제에 맞도록 생활화 풍속화하게 하여야 할 것이니 이것이 민주불교의 첫 단계가 될 것이다.¹⁴⁾

라고 하여, 현대 민주사회에 적합한 대중적이고 민주적인 교화로 사회 속에서 시대적인 생활이나 풍속을 통하여 친근하게 교화하려는 교화방안을 찾을 수 있다. 따라서 진각종의 교화자는 종단의 정체성에 해당하는 자주적인 내적인 마음의 수행(心印內證)을 바탕으로 하여, 인과(因果)를 깨달아 육행(六行)을 실천하려는 종지와 종풍으로, 생활불교·실천불교의 다양한 시대적인 선교방편(善巧方便)과 민주적·대중적·현대적인 방법으로 중생을 제도하여 밀엄정도를 구현해 가는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회당의 진각종의 창종정신에 의한다면 먼저 진각종은 당시 불교정신을 시대적인 교화방편에 입각한 새로운

11) 김방룡, 「해방후 한국불교의 분열과 신생종단 성립과정」, 『종교문화연구』 3권(한신인문학연구소, 2001)에서는 “한국불교계는 전통종단과 신생종단을 가르는 뚜렷한 성격의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즉 신생종단의 발생이 기존 전통종단에 대한 철저한 반성 내지 새로운 불교로서의 모습을 지향하고 출발하였다고 하기보다는, 정부의 정책 변화나 불교계 내부의 이권 다툼의 과정에서 거의 대부분이 자신의 사찰과 암자를 유지하려는 목적에 의해 새로운 종단을 만들었다고 보여 진다.”라고 하고 있지만, 진각종의 경우는 신생종단이지만 수행과 종단운영 등에 있어서 현대적인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전통종단과는 확연히 구분된다.

12) 김경춘, 「불교개혁운동과 신생종단의 출현」, 『한국선학』 17집(한국선학회, 2007), p.268에서는 “근대 한국불교의 개혁운동이나 신생종단의 과제를 승단의 개혁과 불교의 대중화”를 위주로 설명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진각종의 재가주의 승단의 제창이나 현대적인 교화방법을 제시하는 것과 일맥상통함을 보인다. 또한 김경집, 「회당 손규상의 불교개혁사상연구」, 『회당학보』 제6집(회당학회, 2001), p.29에서도 “회당이 주장했던 불교운동이 기존 불교의 부정이 아닌 연속선상이며, 개혁의 의의는 동질성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고 있다.

13) 회당, 「대한불교 진각종 보살회를 세우는 뜻」, 『회당논설집』(위덕대학교 밀교문화연구원, 2002년), p.21.

14) 회당, 「불교의 분화와 협동」, 『회당논설집』(위덕대학교 밀교문화연구원, 2002년), p.58.

불교를 주장함이다. 이것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법신불을 중심으로 하는 실천적인 불교로서의 스스로의 자심인 심인(心印)을 밝히는 자주적인 수행과 육행을 실천하는 생활불교를 지향함.

둘째, 기존의 불교가 지니는 장점을 유지하고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새로운 시대에 적합한 종문을 열어서 불교가 전체적으로 발달하고자 함.

셋째, 시대에 부합하는 민주적이고 재가 주의적인 입장에서 사회 속에서 교화하는 교화방편의 확대를 도모하고자 함.

이러한 종조의 정신에서 본다면 진각종의 이상적인 교화자상은 불교교화에 대한 투철한 사명감을 바탕으로 자주적인 수행방법을 통하여 진리를 추구하고, 사회 속에서 생활하면서, 민주적인 교화를 실천하는 생활불교와 실천불교의 전문인을 말한다.

2. 종단의 특성과 교화자상

회당의 글 『대한불교진각종 보살회를 세우는 뜻』에는,

그러므로 현세를 교화하려고 새로 창종한 진각종은 교종과 본심진언을 주로하고 불타의 중생교화의 본뜻을 바로 가르쳐서 다신다불을 세우지 않는다. 또한 안으로 나에게 있는 심인보살님과 밖으로 세계에 두루 찬 법계진각님을 깨쳐서...¹⁵⁾

라고 하고 있다. 이 글에서 먼저 “현세를 교화하려고 새로 창종한 진각종”이란 부분은 진각종의 현세정화 이념의 실현을 밝히는 부분이다. 이것은 회당의 인식 속에는 기존의 불교가 조선과 구한말의 암울한 시기를 거치면서 의타적인 신앙행위와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내세(來世)를 위한 불교로 전락한 것에 대한 반성적인 의미가 함께 하고 있으며, 이를 개혁하여 불교의 본래취지인 현세정화를 새롭게 부각하고자 함을 엿 볼 수 있다.¹⁶⁾

이런 점에서 비밀한 진리가 항상 현실에 충만하듯이 법신이불의 진리를 현실에 실현하려는 취지에서 밀교가 지니는 근본정신 중에서도 현실 긍정적이며, 실천적인 가르침에 주목하고 있다. 그리고 교화방편으로서는 다신다불이 아님을 밝히고 있다. 여기에서 다신다불이란 다양한 유상의 방편을 말하는 것으로, 기존 불교의 불상숭배에 해당하는 신앙행위를 말한다. 그리고 “안에 있는 심인보살님과 밖에 있는 법계진각님”이라는 표현은 특성적

15) 회당, 『대한불교진각종 보살회를 세우는 뜻』, 『회당은설집』(위덕대학교 밀교문화연구원, 2002년), p.20.

16) 윤원철, 『현대 한국불교의 사회적인 역할』, 『회당학보』 제6집(회당학회, 2001), p.126에서는 “한국 현대사회에서 불교가 적극적인 역할을 거의 하지 못했다는 점, 또한 불교 자체가 현대화에서 뒤졌다는 점이 현대 한국사회와 문화 선도 세력의 지분에서 불교에게 중대한 약점이 된다.”고 하여, 불교의 현대화에 대한 반성적인 의미를 말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당시 불교계의 절실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선구적인 역할로 볼 수 있다.

인 것으로 보인다. 안과 밖의 대조적인 어법을 통하여 심인은 곧 우리들의 내면적인 불성의 세계를 말하는 것이라면, 법계 진각님은 곧 법계에 편만한 진리 그 자체를 의미하는 법신불임을 짐작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는 심인에 의하여 자각되어지는 진리를 외면적으로 표현 한 것이며, 밀교의 법신신앙에 근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기존 대승의 법신불과는 달리 법계 진각님이라고 표현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것은 밀교의 법신 비로자불로 정리된다.

그리고 같은 제목의 글에서 불교의 실천 강령인 회사·계행·하심·용맹·염송·지혜를 육바라밀이라고 하고 있다.¹⁷⁾ 본래로 대승불교의 육바라밀이란 보시·지계·인욕·정진·선정·지혜를 말하는 것이지만, 보시를 회사, 지계를 계행, 인욕을 하심, 정진을 용맹, 선정을 염송으로 고쳐서 부르고 있다. 이것은 보시·지계·인욕·정진이 남에게 베풀고, 계를 지키고, 대상으로부터 욕됨을 참고, 열심히 노력하는 외형적인 의미를 중시하는 행위적인 용어라고 한다면, 이에 비하여 기쁘게 보시하고, 계를 실천하고, 마음을 하심하고, 마음의 정진력을 유지하는 등은 마음의 내적 자세에서 실천하는 것을 중시한 것이 된다. 특히 선정의 수행방법 대신에 염송을 둬으로써 밀교의 진언수행을 새로운 육바라밀 수행으로 재구성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외면적으로 중생구제를 위하여 행해지는 대승 보살의 육바라밀을 내면적인 자기 정신의 수련과 함께 행해지는 실천적인 의미를 갖춘 것으로 표현하고 있음을 말한다. 따라서 용어의 사용에 있어서도 기존의 용어에 국한 되지 않고, 그 정신을 살리는 취지로 바꾸어 부르고 있는 적극적인 불교사상의 수용을 통한 새로운 정신을 부여한 용어로 변화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자주력의 양성은 오직 불교만으로서 불교 중에도 특히 다라니 밀교와 대승과 일승 등이 그 자주력을 가지고 있습니다.¹⁸⁾

라고 하여, 민족의 자주력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불교의 자력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설하고, 그 중에서도 밀교를 다라니 밀교로 표현하고 있다. 이것은 육자진언의 수행을 중시하는 입장에서 진언수행을 통한 행자 스스로의 자주력을 중시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것은 밀교 중에서도 다양한 의례적인 작법보다는 자주적인 진언의 수행을 중시하는 점에서 밀교를 수용하는 입장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밀교의 정신을 표방하면서도 대승과 일승을 밀교와 나란히 열거하고 있다는 점에서 서로의 차이점에 중심을 두는 것 보다 중생들의 근기에 따른 다양한 불교수행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는 이어지는 글에서,

17) 위의 책, p.20.

18) 회당, 『불교는 우리의 풍토성과 혈지성에 맞는 것』, 『회당논설집』(위덕대학교 밀교문화연구원, 2002년), p.83.

현밀 대소승 종파가 많이 발전하여 왕성하게 되면 예측 되거나 분열될 우려가 없게 될 것입니다.¹⁹⁾

라고 하여, 상호 이원적인 발전을 설하는 내용이며, 우월시비 등의 교판적인 시도는 하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이상에서 살펴 본 회당의 논설문에서는 밀교와 현교의 교판적인 차이점 보다는 상호 보완하는 이원적인 원리에 의하여 불교가 발전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으며, 따라서 당시 불교의 한계를 지적하는 것과 동시에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밀교의 선양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 당시 지적되고 있는 밀교에 대해서는 육자진언의 수행과 법신신앙의 입장에서 정리한 것이며, 밀교의 체계적인 교설이나 다양한 수행법을 그대로 전승한 것이 아니라, 회당의 깨달음과 사회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밀교교학에 해당하는 법신신앙과 현실정화의 실천, 자주적인 진언수행 등을 선택하여 취함으로써 시대상에 적합한 밀교의 정립을 위하여 시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구체적인 실천의 강목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법신불의 체상용은 육대사만삼말로써 모든 사실 설법이요. 활동하는 경전이라. 생멸없는 그 진리는 인과로써 나타나니 사지사력 활동으로 생활 중에 각할지라. 일은 복지전수, 이는 사리필구, 삼은 생활취사, 사는 결과내증.²⁰⁾

이것은 현실 긍정적인 밀교 정신을 새롭게 표방한 것으로 법신불의 설법은 당체법문(當體法門)으로 현실에 반영되기에 현실이 곧 법신불의 설법이 담긴 경전이 되며, 그 내용은 인과로써 나타나기에 그 속에서 인과를 깨닫기 위하여 복과 지혜를 닦아 그 의미를 탐구하고, 생활 속에서 실천하며, 그 결과를 검증해 보는 것을 실천의 요목으로 삼는다.

이것은 법신설법이라는 밀교의 법신관에 머물지 않고 법신진리가 가지(加持)된 현실 속에서 이를 자각하기 위하여 생활 속에서 이를 구현해 가는 법신신앙의 실천적인 면을 부각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진각종의 특성적인 의미와 관련하여 진각종 교화자의 이상적인 모습을 달성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도제교육의 내용을 정리해 본다면 다음과 같다.

1) 진각종문의 중요 핵심을 차지하는 새로운 불교로서 기존의 전통불교와 구분되는 특성적인 회당의 자내증을 중심으로 하는 사상과 종사와 관련한 종지 종풍과 이와 관련한 시대별 전승과 전개과정에 대한 깊은 신념과 이를 선양할 수 있는 자질이 필요하다.〈진각종학〉 그리고 진각종학을 구성하고 있는 불교학과 밀교학과의 관련성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부가되어야 한다.

(1) 불교의 성립배경과 관련한 다양한 지역별·시대별 전승과정과 이들 과정 속에서 펼

19) 위의 책, p.83.

20) 회당 편역, 『진각교전』(진각종 해인행, 1996), pp.83-84.

- 쳐진 사회적 변천과정과 문화와 역사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불교학〉
- (2) 대승불교의 전개과정 속에서 꽃 핀 밀교의 정수를 이해하고 이를 통하여 불교사상을 전반적으로 재정립 할 수 있는 전문적인 밀교학의 소양과 자질을 함양하여야 한다.〈밀교학〉
- (3) 진각종학을 중심으로 불교와 밀교사상을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실천수행하며 이를 선양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야 한다.〈종학〉
- 2) 진각종문에 널리 공용되고 있는 종단 수행법에 대한 전문적인 수행과정을 통한 증득과 이에 수반되는 현대적인 습의(習儀)와 민주적인 생활방식을 비롯한 교화에 필요한 위의(威儀)와 의례작법(儀軌作法) 등의 습득이 필요하다.〈진각수행의례〉
- 3) 생활불교 실천불교를 지향하는 종단의 교화이념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대사회적인 문제와 생활과 직결된 다양한 현대사회의 문제들에 관한 고뇌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사회구제실천〉
- 이를 정리한다면 진각종의 이상적인 교화자상은 회당의 자내증을 중심으로 하는 불교학과 밀교학을 통섭하는 진각종학의 심도있는 연구와 이를 바탕으로 하는 진각수행의례의 수행실천과 사회구제를 위한 전문적인 실천방안을 확립하려는 자이다.

Ⅲ. 진각종 도제교육의 실천방안

1. 도제교육 제도의 방향

불교는 석존이후 시대와 사회에 따라서 다양한 모습으로 전개되어 왔지만 일반적인 종교에서 발생하는 정통(正統)과 이단(異端)이라는 분열된 양상보다는 시대와 사회의 변화에 대한 순응(順應)의 원리와 자체적인 교학의 정비과정을 거치면서 보다 심오하고 체계적인 정비를 이루어 가는 통합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다. 특히 인도불교의 도제교육은 승가의 원칙성을 강조하기 보다는 사회적인 변동성에 따른 교육의 변화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불교의 유연성에 의한 것이라고 보여 진다. 이러한 점은 종교도 문화현상의 하나로써 사회적인 장에서 배워서 익혀지고 공유되는 것이기 때문이다.²¹⁾

따라서 한국사회에서도 삼국통일의 원동력으로서의 신라불교, 국가불교로서 사회의 안정을 유지했던 고려불교, 일반대중의 애환과 함께 했던 조선불교 등의 역할을 통하여 각 시대별로 활동을 전개할 수 있었으며, 승가교육 또한 시대별 특성에 적합한 교육내용으로 변천하였다.²²⁾ 그러므로 근대사회에서 현대사회로 이동하는 급격한 해방이후의 사회 격동

21) 기시모토 히데오 저, 박인재 역, 『종교학』 (김영사, 1983), p.136.

기에 해당하고, 동서양의 문화사 상충하는 새로운 사회조직의 변화 속에서 불교는 새로운 모습으로 변모하지 않을 수 없었다. 특히 현대사회는 다원화되고 전문화된 사회이며, 종교 지도자는 사회지도자로서의 위상을 겸하게 되므로 반드시 고등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은 이미 지적되어 있다.²³⁾

진각종은 이러한 시대적 사회적인 요청에 부응하기 위하여 근대적 가치를 반성하고, 현대사회에 순응하기 위한 불교의 현대적 혁신운동을 모체로 한다. 그러므로 진각종은 근대적인 유교의 통솔적 일원주의 사회에 대한 반성과 함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불교의 근본정신에 입각하여 기존 전통불교의 초세간적인 방편을 탈각하고, 자주적이고 평등하게 과학 문명인을 계도하는 대중적인 방편을 통하여 불상(佛像)을 떠나 법보화(法報化) 삼신(三身) 이불(理佛)을 믿고 육행(六行)을 실천하여 인과(因果)를 내증(內證)하여 중생을 교화함을 그 창종의 취지로 한다.²⁴⁾

이러한 정신은 생활불교·실천불교의 이념으로 현실 속에서 구체화되어 표출된다. 이런 맥락에서 진각종은 근대성에서 현대성, 출가에서 재가, 내세에서 현세, 유상(有像)에서 무상(無像)을 설하고 있으며, 이는 기존 전통불교에 대한 진각종의 존립 근거가 되는 정체성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따라서 이러한 당위성에 입각하여 종단의 도제교육에 대한 방향을 다음과 같이 설정할 수 있다.

1) 진각종은 신흥·재가·생활불교로서 현대적인 교화감각과 시대적인 사회 참여를 통한 적응력을 증시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불교의 근대적인 전통교육과 출가위주 교육에서 탈피하여 현대적인 교육으로 다양한 전문지식과 사회적인 능력을 축적하기 위하여 전문적인 대학교육과 수행교육을 병행하는 것이 절실하게 요청된다.

- (1) 현재 주요 서양종교의 도제양성 과정이 대학과정과 연계되어 현실감 있는 종교 지도자를 육성하고 있다(대학 4년 또는 대학을 포함하여 대학원 졸업 후 6~7년을 교육하고 종교 지도자의 품계를 주고 있다).
- (2) 대학교육에서는 불교의 기본교의와 진각종학·밀교학·어학을 비롯한 사회 기본교육을 주로 한다(내전과 외전의 체계적이고 다양한 교과목을 필요로 한다).
- (3) 대학교육에서 현대적인 사회활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교육·복지·환경·외국어·전산·문화·과학·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필요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교직과정과 복수전공·부전공·연계전공 등을 최대한 활용한다).

2) 교화자로서 불교의 전통적인 습의과 진각종의 특수교리 및 수행과 포교에 필요한

22) 남도영, 『한국 사원교육제도』, 『역사교육』 제27-28(역사교육학회, 1980), pp.45-83에서는 ① 교학시대(불교전래에서 선의 전래까지), ② 교선병립시대(신라 말에서 고려 문종까지), ③ 선교융섭시대(천태종과 조계종의 개종 후 고려 말까지), ④ 선교양종시대(조선 태조에서 선조까지), ⑤ 선교겸학시대(휴정과 부휴이후) 등으로 시대별 특성에 따라 한국의 승가교육을 다섯 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23) 박선영, 『출가위승과 교육의 제문제』, 『석림』 15 (동국대 석림회, 1981), p.938.

24) 회당, 『대한불교 진각종을 세우는 뜻』, 『회당 논설집』(위덕대 밀교문화연구원, 2002년), pp.17-21.

이론과 경험도 오늘날은 대학교육 내에서 전문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제도화된 교육으로 전환 할 필요성이 있다.²⁵⁾

- (1) 도제양성을 위주로 하는 종립대학의 경우 종학관련 학과를 개설하고, 정규 교과과정과 별도로 교화자에게 필요한 수행을 비롯한 다양한 교육제도를 대학교육 체계 안에서 운영하고 있다(전통교육의 체계적 교과화 - 진각종사 · 회당사상 등, 전통수행의 현대적 교과화²⁶⁾ - 회사법의 이론과 실제, 당체법문의 원리와 실천 등).
- (2) 개인적 · 비정규적 · 권위적인 불교계의 전통 도제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고, 현대적인 교육체계가 축적된 대중적 · 정규적 · 민주적인 대학의 교육체제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학점제, 생활지도 규범화,²⁷⁾ 수행 프로그램화,²⁸⁾ 특별활동 제도화²⁹⁾ 등).
- (3) 예비 교화자는 앞으로 대중들과 사회를 지도할 자이므로 개인적인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과 함께 이를 보편화하여 대중의 문제와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하기 위하여 전통적인 개인위주의 도제교육에서 사회위주의 대학교육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사회봉사 · 종교경험 · 사회체험 · 시사토론 · 예술체험 등).

3) 오늘날은 대학교육은 이미 일반 교육화 되었고, 전문적인 직종에 해당하는 교육은 대학원 이상의 과정을 의무화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에서 존경의 대상이 되는 종교 지도자를 양성하는 도제교육은 대학원 과정과 병행되어야 한다. 대학원 과정에서는 전문화된 분야별로 심도있게 교육함으로서 그 분야에서 전문적인 소양을 얻고 전문인으로서 사회적인 지도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논문지도 · 학위수여 · 학회활동 · 전문 스테디 그룹 학습 등).

4) 대학교육과 대학원 교육이외의 종단실무와 포교실습을 겸한 별도의 종단 실무교육 과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방학 중 단기적인 실무교육과 대학교육 이수 후 1년, 혹은 대학원 졸업 후 1년 정도의 본격적인 종교 현장실무 교육이 필요하다.

5) 전체적으로 도제양성에 필요한 교육기간은 대학교육(4년)과 대학원 교육(2년)과 종단 실무교육(1년)을 기본 의무교육과정으로 하는 7년³⁰⁾이 소요되며, 이 기간에는 교육에 전

25) 현대적인 불교교육의 중요성과 함께 한편으로는 불교 세속화의 문제를 지적하는 경우도 있다.〈원의범, 『승가교육의 역사적 전개』, 『석림』 제9권(동국대학교 석림회, 1975), pp.334-338〉. 하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현대적인 교육이란 전통교육을 현대교육 속에서 체계적으로 정립하는 보완적인 교육이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26) 전통교육 속에서, 특히 수행의 체험을 위주로 하는 교육은 교수의 능력이나 개인의 수용의사가 학습효과에 큰 영향을 미치며, 자의적인 해석이나 이해로 전달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전통적인 수행교육일수록 더욱 체계적으로 접근하기 위하여 현대적인 교육방법을 접목하여야 한다.

27) 정해진 도제의 위상에 적합한 생활지도를 실시하며,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

28) 도제에게는 수행과 관련한 교육이 필수적이며, 이를 학년별도 체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화함으로써 운영과 효과면에서 충실을 기할 수 있다.

29) 도제에게는 대학교육으로 전달할 수 없는 교화체험 · 교화방법 · 교화실례 등의 체험을 바탕으로 하는 특별한 활동교육이 부가되어야 한다.

30) 현행 조계종의 경우, 행자 교육원 1년과 승가대 · 동국대 불교대학 4년의 기본 의무교육과 학림 · 승가대

념 할 수 있도록 최선의 여건을 배려해야 한다.

6) 각 과정의 수료와 동시, 평가에 의한 단계별 위계와 위상을 정립하고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여 인사와 행정에 반영함으로써 종단의 위계를 수립할 수 있다.

7) 기타 재교육을 비롯한 종단에 필요한 특수 분야 전문 성직자 양성, 자격연수 등에 관한 내용은 별도로 정해야 한다.

그러므로 현재 종단 내부에서 운영되고 있는 진각대학원(인정과정 2년, 전문과정 2년-위덕대 불교대학원 종학과 교육 포함)과 위덕대학교(학부 4년, 대학원 2년)의 교육과정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정비한다면 진각종 도제교육의 기본의무 교육과정을 다음과 정리할 수 있다.

1) 현재 시행 중인 자성학교³¹⁾·중고등학생회·청년회 등에서 교화에 뜻을 두고 있는 우수한 발심 도제 후보자들을 발굴하고, 이들을 교구별 또는 종단차원에서 정기적으로 관리 교육한다.

2) 교화와 중무를 희망하는 고등학교 졸업 혹은 대학이상을 졸업한 자를 대상으로 일정 자격을 심사하여 종비 장학생³²⁾으로 선발한다.(종비장학생 선발위원회)

3) 고등학교 졸업자는 위덕대 불교학과 1학년(진각종학 전공 신설)으로, 대학이상을 졸업한 자는 위덕대 불교학과 3학년(진각종학 전공)으로 편입학 하고, 학교생활과는 별도로 종교시설을 겸비한 종비 장학생 수행 기숙사³³⁾에서 종단 수행관련 교육과 습의를 익히고, 졸업과 동시에 일정한 자격심사를 거쳐 예비 교화자에 해당하는 품계를 수여한다.

4) 진각대학원의 전문과정(위덕대 불교대학원 종학과 2년 포함)에 진학한 예비 교화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종단의 승인을 얻어 특정 분야를 전공하면서 종단 의식과 교화를 보조하는 실무경험을 쌓을 수 있다.

5) 진각대학원을 졸업한 예비 교화자를 대상으로 준 교화자의 자격을 주고, 종단 실무교육을 1년 동안 종단주체로 실시한다.

6) 종단 실무교육을 1년 동안 수료한 준교화자를 대상으로 교육기간 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예비교화자 교육³⁴⁾을 실시하고, 일정심사와 고시를 거쳐 교화자 품수를 수여한다.

학원·율원·선학연구원 등 3년의 전문교육 기간을 두고 있으며, 전통교육과 대학교육이 혼재되어 있다(박선영, 『한국불교의 승가교육제도』, 『종교교육학연구』 제8권(한국종교교육학회, 1999), pp.51-78).

31) 진각종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일요법회를 말한다.

32) 종비 장학생이란 대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교화 희망자를 선발하여, 학비와 생활비 등을 지원하고, 도제교육을 수료하고, 졸업 후 교화자가 되는 과정을 의미한다. 철저한 선교육 후득도(先教育後得道)의 원칙에 따라 진행되는 점이 바람직하다

33) 이기영, 『승가교육의 제문제』, 『석림』 제9(동국대학교 석림회, 1975), p.330에서는 교화자의 교육은 “동주(同住)·동숙(同宿)·동식(同食)하면서 같이 하지 않으면 도인(道人)될 공부는 못하게 되고, 단순히 지식만을 전수하게 된다.”고 하면서 선방과 강원과 대학이 함께 하는 교육의 장(場)을 제시하였다. 특히 도제교육에서 대학 교육 이외의 교육에 해당하는 생활지도·수행·특별활동 등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선방과 강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수행 기숙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7) 전문분야의 전문인을 육성하는 전문도제, 도제들을 위한 특별심화 교육, 외국인 스승 양성교육 등은 별도로 정한다.

2. 도제교육의 제도적 준비

회당은 일찍부터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참회원 시절에 문맹퇴치를 위한 국문 강습을 실시하였고, 1955년 심인중학교, 1957년 심인고등학교를 설립하면서 위덕법인 위덕학사를 설치하였고. 이것이 발판이 되어 1977년 진선여자중·고등학교와 1996년 위덕대학교를 설립하게 된다. 이러한 사회교육의 열정은 도제교육과 무관하지 않다. 1964년부터 이들 종립학교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종비 장학생 제도를 실시하였기 때문이다. 종비 장학생이란 교화자가 되기를 희망하는 자를 선발하여 교육혜택을 부여하여 우수한 교화자를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실시된 도제교육의 일환이다.

진각종은 불교계의 타 종단에 비하여 일찍부터 도제교육에 해당하는 종비 장학생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있었으며, 많은 부분에서 선구적인 사례를 지니고 있다.³⁴⁾ 그러나 정기적인 규범이 정해져 있지 않아 굴곡이 있었으며, 운영방법에서도 체계적인 면이 결여된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제도적 보완을 필요로 하며, 법제적 정비의 수반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도제교육과 관련한 제도적 정비를 위한 준비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본다.

1) 종단의 현직 교화자에 대한 종풍을 쇄신하여 교화자의 위상을 제고하여, 청정한 종풍과 위의를 확고하게 하는 일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미래의 교화자를 희망하는 예비 교화자들은 현재의 교화자가 그 모본(模本)이 되며 이를 희망으로 삼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직 교화자의 위상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위상규범을 정리 할 필요가 있다. ⇒ 교화자 위상규범의 정비

2) 교화자를 위한 교육은 종단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명이라는 전 종도의 자각과 함께 도제교육을 종단의 모든 불사에 우선하는 위치에 두고, 장기적인 계획을 바탕으로 신속하게 사회변화에 순응해 가면서 적응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도제교육의 교육현장을 제정하고, 종지를 모아 도제교육과 관련한 관련법을 제정 및 개정하고, 여기에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도제교육에 대한 원칙을 설정하여야 한다. ⇒

34) 현재 진각종에서는 도제교육 과정을 모두 마친 예비 교화자를 대상으로 100일 동안 예비 교화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주된 내용은 일과수행과 교화에 대한 마음가짐과 실무능력 배양을 목적으로 하며, 교화실습, 과목별(교리, 의식, 행정) 전담 스승의 세분화 강의, 『실행론』과 『보리심론』의 강독, 사경 및 자성정진, 설법안 연구 및 발표 등이다.

35) 현재 진각종의 종헌에는 “본 종의 도제양성을 전문적으로 하기 위하여 종비 장학제도를 실시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종법 속에 도제 양성법을 두고, 종비 장학생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을 밝히고 있으며, 현재 위덕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교육관련법 제정 및 개정

3) 현재 진각대학원과 위덕대학교의 다원화된 도제교육의 제도적 일원화를 통하여 일관성 있고, 지속적인 교육과 종학에 관한 대내외적인 학문적 연구를 추구해야 한다. ⇒ 진각대학원과 위덕대학교의 도제교육 및 연구역할 분담

4) 전통적인 도제교육의 장점을 확보하고, 현대적인 교육방법을 다양하게 개발하여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 ⇒ 현대적인 교육방안 및 교과내용 개발 연구(도제교육 연구위원회)

5) 교육재정의 확충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 수립과 재정적인 축적을 통하여 선진적이고 현대적인 교육재원과 시설을 확보해야 한다. ⇒ 교육재원의 제도적인 확보방안 마련

6) 현재 운영 중인 종무원 제도³⁶⁾와 종비 장학생 제도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종단의 현실과 함께 장단점을 파악하여 실질적인 종비 장학생 제도와 종무원 제도의 위상을 각각 정립한다. ⇒ 도제교육과 종무원 제도간의 상호위상 정립.

IV. 맺음말

창종 65년을 맞는 진각종의 위상과 미래에 대한 불교계의 기대는 지대하다. 진각종에 대한 기대는 일찍이 회당의 시대를 통찰하는 혜안에 의한 것이며, 이런 가르침은 짧은 시기에 종단을 반석 위에 올려놓기에 충분하였으며, 끊임없는 변화의 주체로서 종단의 위상을 자리 매김하고 있다.

그러나 창종 당사가 근대화 문제를 극복하는 현대화의 시대였다면 지금은 후기 산업 사회에 도달하고 있으며, 어느 시기보다도 절박한 산업화의 후유증으로 새로운 구원의 목소리가 높다. 지금 우리들에게 주어 진 현재의 여건들은 지난날의 인(因)지음에 의한 것이며, 이것들은 반드시 미래를 위한 새로운 인(因)지음으로 대치될 때에 희망이 있다. 법(法)은 스스로 증감(增減)하지 않으며, 사람에 의해서만 증감이 가능하듯이 미래를 준비하는 중심축에서 중요한 것은 도제양성이다.

특히 고도의 산업기술 시대를 넘어 예측할 수 없는 무한한 미래가 도래하고 있는 시점에서 인재를 양성하는 방법 또한 이 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오늘날의 교육방법이 필요하다.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현대적 도제교육 방법을 통한 미래지향적인 훌륭한 교화자의 양성만이 종단의 미래를 결정하는 확실한 변수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도제교육과 관련하여 종단에서 현재 시행 중에 있는 교화자의 위상과 관련한 부분과 앞으로 도제교육의 중요성을 실천할 수 있는 몇 가지의 방향을 제시한다

36) 종무원 제도란 종단에 입교·신행한 일정기간이 지난 신교도 중에서 교화자를 희망하는 자를 선발하여, 종단 실무에 종사하면서 신행과 교육을 겸하는 도제교육을 실시하는 과정을 말한다.

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진각종 교화자의 위상을 명확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진각종의 교화자는 기존의 승단과는 구분되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재가주의의 입장을 표명하기에 이에 적합한 습의와 위상이 정비되어야 한다.

둘째, 진각종은 항상 현재시점에 유용한 새로운 불교의 전문포교 방안을 지속적으로 개발함으로써 존립의 의미를 유지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현대적인 도제교육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교육 방안이 수립되어야 한다.

셋째, 진각종은 진각대학원과 위덕대학교를 비롯한 종립학교를 설립하였으며, 이를 활용하는 도제교육의 제도적인 정비가 필요하다.

넷째, 진각종 도제교육의 수행과 교육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는 수행지도와 교과과정의 운영을 필요로 한다.

다섯째, 이와 같은 취지에 부합하는 도제교육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종헌이나 종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새롭게 개정함으로써 실질적인 도제교육이 실천될 수 있다.

참고문헌

- 기시모토 히데오 저, 박인재 역, 『종교학』, 김영사, 1983.
- 김경집, 「회당 손규상의 불교개혁사상 연구」, 『회당학보』 제6집, 회당학회, 2001.
- 김경춘, 「불교개혁운동과 신흥종단의 출현」, 『한국선학』 17집, 한국선학회, 2007.
- 김무생, 『회당사상과 진각밀교』, 위덕대 출판부, 2002.
- _____, 「진각종 교화이념의 사회성」, 『회당학보』 제6집, 회당학회, 2001.
- 김방룡, 「해방후 한국불교의 분열과 신생종단 성립과정」, 『종교문화연구』 3권, 한신인문학연구소, 2001.
- 남도영, 「한국사원교육제도」, 『역사교육』 제27-28, 역사교육학회, 1980.
- 밀교문화연구원, 『회당사상연구논선』, 위덕대학교 출판부, 2001.
- _____, 『회당사상』, 진각종 해인행, 2007.
- _____, 『회당논설집』, 위덕대 출판부, 2002.
- 박선영, 『불교의 교육사상』, 동화출판사, 1981.
- _____, 「한국불교의 승가교육제도」, 『종교교육학연구』 제8권, 한국종교교육학회 1999.
- _____, 「출가위승과 교육의 제문제」, 『석림』 15, 동국대 석림회, 1981.
- 윤원철, 「현대 한국불교의 사회적인 역할」, 『회당학보』 제6집, 회당학회, 2001.
- 이기영, 「승가교육의 제문제」, 『석림』 제9권, 동국대학교 석림회, 1975.
- 원의범, 「승가교육의 역사적 전개」, 『석림』 제9권, 동국대학교 석림회, 1975.
- 이지관, 「한국불교승가교육의 사적고찰」, 『불교학보』 제18집, 불교문화연구원, 1981.
- 회당 편역, 『진각교전』, 진각종 해인행, 1996.

원고접수 : 2011년 1월 19일 1차 심사 : 2월 1일 게재승인일 : 2월 13일

연구자 소개 : 장익

① 전공 : 불교학, 밀교학, 한국밀교 / 소속 : 위덕대학교 불교문화학과

② 관심영역 : 밀교성립론, 대승과 밀교, 불교교육

③ 주요논저 : 밀교경전성립사론(역서), 밀교학입문(역서), 현대불교 출가자 교육의 과제

④ E-mail : ijang@uu.ac.kr

Abstract

Direction in Education for Apprentices of Jingak Buddhist Order

Jang, Ik

Uiduk University

Jingak Buddhist order differentiates itself from existing traditional and modern Buddhist orders in the aspect of organization and system operation by proposing a new Buddhism consistent with modern society. And, it has operated the specialized monk education system of traditional Buddhist orders separate from that for would-be monks or at the temple.

However, it is time that the direction of monk education for new environment be considered based on the changes of times and Buddhist orders.

Above all, for this, an ideal image of culturalist suitable for the foundation spirit of Jingak Buddhist order should continuously be established, which makes the direction in education for apprentices to supplement the members of Jingak Buddhist order with the roles of new culturalist judged. Also, it is time that a specific ideological direction of education for apprentices be sought with the consideration of such culturalist image. The system preparation and education process establishment for practical education plan was attempted in this process. System changes being applied in education for apprentices of Jingak Buddhist order and several suggestions of the direction for the future to fulfill the significance of education of apprentices are as follows;

First of all, a definite image of Jingak Buddhist order culturalist is needed to set up since such culturalist is distinct from the one of existing traditional Jogye Buddhist order. The status to fit the fundamental announcement of secularism position should be organized.

Second, Jingak Buddhist order could maintain the meaning of existence by persistent development of specialized Buddhism propagation way useful without exception at this point of time. Accordingly, the systematic and effective plan of modern apprentices education should be devised.

Third, Jingak Buddhist order founded Buddhist schools including Jingak graduate school and Uiduk University and needs institutional alignment of apprentices education to use the schools.

Fourth, the systematic arrangement for performance and contents of Jingak Buddhist order's apprentices education are required with the consequent practice instruction and curriculum operation.

Fifth, for the purpose of realizing the apprentices education consistent with this intent, practical apprentices education through new revision of contents prescribed in order charter or code could be performed.

Key words : Haedang, Jingak Buddhist Order, Traditional Buddhist Order, Education of Apprentices, Culturalist, Compulsory Education